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임 정 하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윤 정 진²⁾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90년대에서 2009년까지의 학술지 논문 90편을 대상으로 시기별 발표현황과 방법론적 측면 및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이용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주 연구대상은 아동후기인 초등고학년이었다. 부부갈등 평가도구는 아동보고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응답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자료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이었으며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특히 내적·외적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다. 부부갈등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는 주로 인구학적 특성이,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특성변인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부갈등, 부모갈등, 아동, 연구동향, 학술지논문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임정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E-mail: jhlim@korea.ac.kr)

2)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 론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8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국외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논문이 나타났다(Emery, 1982). 하지만 초기의 고찰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해 부부갈등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거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부부갈등을 평가한 경우도 많았다. 이후,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Emery, 1988;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에서 가족의 해체보다 부부갈등과 불화가 이혼가정 아동들의 부적응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면서 관련성의 구체적 기제를 밝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등). Fincham(1994)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 간 관련성을 밝힌 연구를 ‘1세대 연구’로, 이러한 관련성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연구를 ‘2세대 연구’로 구분하면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세대 연구가 향후 보다 더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부터이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기준으로 국내의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시초로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 관련성을 살펴 본 고정자와 김갑숙의 연구(1992)를 들 수 있다. 이후,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도구(예: Child Perception for Interparental Conflict, Grych, Seids, & Fincham, 1992)가 소개되면서 국내 부부갈등 관련 아동연구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외에 비해 이 분야 연구의 시작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Fincham(1994)이 언급한 1세대 연구를 지나 이미 2세대 연구에 진입한 상태이다. 즉, 국내에서도 현재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의 경로나 기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부부갈등은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정도, 지속기간 등이 다양하고, 갈등의 양상이 외현적일수도 있고 겉으로는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부부갈등의 전반적 특성뿐 아니라 세분화된 각 차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특히 신체적 공격이 수반된 강도 높은 갈등인 경우, 아동의 정서문제 및 행동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었다(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Davies & Cummings, 1994). 또한,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에 관한 것일 때, 아동은 무기력감, 두려움, 우울, 부정적 자기평가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Garble, Belsky, & Cmic, 1992).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 국내의 부부갈등 척도는 주로 부부갈등의 내용과 정도 차원을 다룬 것이었다. 예를 들어, 김갑숙(1991)의 부부갈등 평가도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내용영역을 성격문제, 성문

제, 자녀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시가죽 문제, 배우자 부정문제, 경제난 문제, 금전관리 문제로 나누어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하다고 보았다. 이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Grych et al., 1992)의 한국어판 타당화 작업을 완료한 후, 부부갈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권영옥, 이정덕, 1999; 김윤희, 황순택, 2003;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결과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에 대한 1세대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이나 반항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적 행동문제(김민정, 도현심, 2001; Jenkins & Smith, 1990) 및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적 행동문제(김정란, 2004; 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와 밀접히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아동의 또래문제(정은희, 이미숙, 2004; Stocker & Youngblade, 1999), 학교부적응 및 인지적 문제(이윤주, 2004; Grych & Fincham, 1990)와도 관련된다.

이들 1세대 연구에서 규명된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세대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가설들이 등장하였다. 사회학습적 관점에서는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 아동에게 모델링이 되고, 아동은 이러한 행동을 모방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이는다고 보았다(Emde & Easterbrooks,

1985).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이 아동의 적응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Amato, 1986;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특히 일련의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한 모형을 제시하여 과정 중심적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 인지맥락적(cognitive-contextual) 모형을 제시한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동이 갈등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부갈등의 맥락과 아동의 인지 및 발달 수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서적 불안정가설(emotional insecurity hypothesis)을 제안한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에서는 만성적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각성수준을 높이고 가족의 안정성과 양육자와의 애착에 대해 불안정한 느낌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동의 부적응을 조장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들이 제시된 후 아동의 심리내적 과정인 인지나 정서를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Davies, Myers, Cummings, & Heindel, 1999; Fosco & Grych, 2008)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2세대 연구의 주안점인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아동의 심리내적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련의 연구자들은 부부갈등이 부모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아동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졌다(노지형, 송현주, 2007; 이경남,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Kishnakumar & Buehler, 2000). 이 경우,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가족체계이론의 파급가설이나 보상가설을 들 수 있다. 파급가설(spillover hypothesis)은 부부영역에서 발생한 정서, 감정, 기분이 부모자녀영역으로 파급된다는 것이다(Erel & Burman, 1995). 예를 들어, 부부간 적대감은 아동에게 불안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양육방식, 비효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과 관련된다(Gable et al., 1992). 반면, 보상가설(compensatory hypothesis)에서는 갈등이 많은 부부는 부부하위체계에서의 거부와 불만족에 대한 보상심리로 부모자녀관계에 많이 관여하고 투자한다고 본다(Engfer, 1988).

이들 다양한 관점과 가설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동이 노출된 부부갈등의 구체적 특성과 맥락, 아동의 주관적 지각 및 평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받는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 여러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를 살펴보고 이들을 종합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과정과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2세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국내에서 학술지에

발표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경향을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추후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국내 발표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내용적 경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부부갈등과 관련된 아동의 발달결과를 다룬 국내 학술지의 연구 논문 90편이다. 이들 자료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학술지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항목(논문명, 초록, 목차)에 ‘부부갈등’이나 ‘부모갈등’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56편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804편이 나타났다. 검색된 논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저자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결과변인이 포함된 논문 93편을

선택하였다. 이들 논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을 하나의 변인으로 측정하지 않고 가족갈등이나 가족위험요인의 일부분으로 측정한 논문 3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의 연구발표,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각 부분의 분석기준에 따라 해당 빈도 또는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연구발표 분석기준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 논문이 발표된 시기를 1990년대(1990년~1999년), 2000년대 초반(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2005년~2009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 학술지 중 어느 등급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는지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분석기준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부부갈등 측정도구, 주요 자료분석기법, 정보출처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에서는 연구대상의 수와 특성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논문발표 시기별로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부갈등 측정도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부부갈등을 측정한 방법을 살펴보고, 논문발표시기별로

표 1. 부부갈등 측정도구

측정도구명 (개발자, 출판연도)	응답자	문항수
Conflict Tactic Scale (Straus, 1979)	성인	18
O'Leary & Porter Scale (Porter & O'Leary, 1980)	성인	10
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Kurdek & Berg, 1987)	아동	36
Child Perception for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Grych et al., 1992)	아동	51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Black & Pedro-Carroll, 1993)	아동	10
Marital Conflict Inventory (Jeon, 1994)	성인	26
Partner Abuse Scale: Non Physical (Hudson, 1997)	성인	15
부부갈등척도 (김갑숙, 1991)	성인	40
부부갈등척도 (최규련, 1994)	성인	37
결혼만족도 척도	성인	36
연구자 자기개발척도	아동, 성인	2~46

표 1에 제시된 부부갈등 측정도구의 사용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분석기법에서는 주요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한 통계분석기법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정보출처의 특성은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의 출처가 단일보고자인지 다중보고자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분석기준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내용은 주요 아동변인, 조절변인, 매개변인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하나 이상의 아동변인, 조절변인, 매개

변인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는 중복측정하였다.

먼저, 주요 아동변인에서는 논문발표시기별로 부부갈등이 어떤 아동변인과 함께 연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을 분석할 때는 이들이 포함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절변인(moderator)이란 두 변인 간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말한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인이 포함된 연구를 대상으로 조절변인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인(mediator)이란 독립변인의 효과가 종속변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즉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포함된 연구를 대상으로 매개변인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발표현황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들을 발표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992년부터 2009년 후반까지 총 90편의 연구가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해마다 2편 이내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총 90편 중 논문이 게재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할 때 41편(45.6%)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9편(21.1%)은 등재후보지에 발표되었다. 나머지 30편(33.3%)은 그 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2.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를 연구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문헌연구는 3편이었고, 질문지법을 이용한 조사연구가 87편(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조사연구에서는 모두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은 조사연구 87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부부갈등 측정도구, 주요 자료분석방법, 정보출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수. 연구대상의 수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2968명까지로 나타났다. 총 연구논문 중 16편이 200~3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표 2. 시기별 학술지 발표 논문의 분포: 1990년 ~ 2009년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합계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빈도	0	0	1	1	0	0	1	2	1	2	1	5	6	7	14	11	8	11	12	7	90
소계	8										33					49					90

하였고, 16편이 300~4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편이 400~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연구의 대부분(58.6%)이 200명~500명 미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87편 논문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83편에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4편에서는 일반아동뿐 아니라 임상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포함해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클리닉을 방문한 섭식장애아동을 표집한 경우, 일반아동 표집 후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점수를 기준으로 임상집단으로 구분한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의도표집한 경우, 신체학대를 받아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포함해 표집한 경우가 각각 1편씩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대부분 일반가정의 아동이었으나, 연구목적에 의해 이혼가정의 아동을 포함해 표집한 연구 4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포함해 표집한 연구 2편, 기관 보호 아동을 포함해 표집한 연구 1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분포.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과반수이상의 연구들(60%)이 아동기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1%를 차지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발달단계별 대상이 보다 다양해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 3.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논문 빈도 분포

발달단계	학령구분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소계	합계 (%)
유아기	취학 전 (3~7세)	0	1	4	5	5 (5.7)
아동기	초등저학년(8~10세)	0	0	1	1	
	초등고학년(11~13세)	4	19	22	45	50 (57.5)
	초등학생(8~13세)	0	3	1	4	
청소년기	중학생(14~16세)	0	3	7	10	
	고등학생(17~19세)	0	0	5	5	21 (24.1)
	중·고등학생(14~19세)	1	0	5	6	
청년기	대학생	0	2	2	4	4 (4.6)
기타*		2	3	2	7	7 (8.0)

* 기타에 해당하는 논문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논문 3편, 학령전기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2편, 14세~37세를 대상으로 한 논문 1편이 포함됨.

부부갈등 측정방법

87편의 연구 모두에서 질문지법을 이용해 부부갈등을 평가하였다. 이 때 시기별로 사용된 측정도구의 빈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초창기에는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해 부부갈등을 평가한 연구(이명숙, 김영미, 1993)가 있었다. 하지만,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Grych et al., 1992)를 한국어로 번안해 타당화 작업을 거친 이후,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약 67%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해 부부갈등을 평가하였다.

표 4에 제시된 측정도구를 크게 아동응답용 척도와 성인응답용 척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응답용 척도의 경우,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Grych et al., 1992)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권영옥, 이정덕, 1997)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 아동의 부모이혼지각척도(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Kurdek & Berg, 1987) 중 일부 문항을 번안해 사용한 연구가 2편, Black과 Pedro-Carroll(1993)이 대학생 자녀의 부부갈등 지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한 연구가 6편 있었다.

성인응답용 척도의 경우, 배우자 학대 척도(Partner Abuse Scale: Non Physical, Hudson, 1997)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강덕귀, 2002)를 이용해 부부갈등을 평가한 연구가 8편 있었다. 또한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O'Leary-Porter Scale(Porter & O'Leary, 1980)을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어주경, 정문자, 1999)를 이용한 연구

표 4. 시기별 부부갈등 측정도구 사용 빈도

측정도구명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합계
Conflict Tactic Scale (Straus, 1979)	0	4	2	6
O'Leary & Porter Scale (Porter & O'Leary, 1980)	0	0	3	3
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Kurdek & Berg, 1987)	1	0	0	1
Child Perception for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Grych, Seid, & Fincham, 1992)	5	20	33	58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Black & Pedro-Carroll, 1993)	0	0	3	3
Marital Conflict Inventory (Jeon, 1994)	0	2	1	3
Partner Abuse Scale: Non Physical (Hudson, 1997)	0	1	3	4
부부갈등척도 (김갑숙, 1991)	0	0	1	1
부부갈등척도 (최규련, 1994)	0	1	0	1
결혼만족도 척도	0	0	1	1
연구자 자기개발척도	1	3	2	6

가 6편,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Jeon(1994)이 개발하고 한국어로 번안한 결혼갈등 측정 도구(Marital Conflict Inventory)를 사용한 연구가 6편 있었다. 또한 갈등대처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 1979)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김민정, 도현심, 2001)의 하위척도로 부부간 언어적·신체적 폭력정도를 평가해 부부갈등정도로 본 연구도 6편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김갑숙(1991)의 척도와 최규련(1994)의 척도를 이용해 부부갈등을 평가한 연구도 각각 한편씩 있었다. 또한 결혼만족도를 역채점해 부부갈등을 평가한 연구가 1편 있었다. 나머지 6편의 경우,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해 부부갈등을 평가하였다.

이들 부부갈등 측정도구의 문항 수는 최소 2문항에서 최대 51문항까지 다양했으며, 연구자에 따라 부부갈등 척도의 특정 하위요인의 문항만을 이용한 경우도 많았다. 부부갈등 측정도구에 응답한 대상별로 살펴보면, 아동 71편, 어머니 9편, 아버지 2편, 어머니와 아버지 5편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부갈등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논문은 78편이었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정보를 언급한 논문은 8편에 지나지 않았다.

주요 자료분석방법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분석기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기법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는 전체의 약 10%였고, 나머지 약 90%에서는 변인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변인 간

표 5. 시기별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분석기법의 빈도 분포

분석기법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초반	후반	
집단평균비교	1	5	4	10
상관관계	0	3	1	4
회귀분석	3	12	28	43
경로분석	2	7	5	14
구조방정식 모형	0	4	11	15
요인분석	1	0	0	1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계기법 중 발표 시기에 관계없이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43편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에 걸쳐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처럼 모형을 검증하는 분석기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정보의 출처

부부갈등관련 연구에서 단일응답자를 사용한 경우는 72편(82.7%)이었고, 다중응답자를 사용한 경우는 15편(17.3%)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응답자를 사용한 연구들 중 66편에서는 아동을 응답자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나머지 6편에서는 어머니를 응답자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중응답자를 사용한 15편 중 4명의 응답자를 사용한 연구는 1편, 3명의 응답자(예: 아동,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한 연구는 7편, 2명의 응답자를 사용한 연구는 7편이었다.

3.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내용적 경향

내용적 경향에서는 먼저, 조사연구 87편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함께 연구된 주요 아동변인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연구 중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을 사용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절변인 및 매개변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부부갈등관련 주요 아동변인

부부갈등과 관련해 연구된 주요 아동변인을 논문발표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연구된 아동변인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외적 행동문제를 함께 다룬 연구가 총 37편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비행 등 문제행동 중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부부갈등과 관련해 아동의 내적·외적 행동문제, 정서변인(정서조절능력, 정서적 부적응)과 아동학대변인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는 내적·외적 행동문제 뿐 아니라 이들 중 특정 변인(예: 수면문제, 공격성, 비행 등)을 심도 있게 다루

표 6. 발표시기별 부부갈등관련 주요 아동변인의 종류 및 빈도 분포(중복측정)

구분	변인명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빈도	소계
문제행동	내적·외적 행동문제	4	12	21	37	62
	정서적 부적응(불안, 우울)/고통지각	2	1	4	7	
	ADHD/자해행동/수면문제/위험한 성행동	0	1	3	4	
	공격성	0	4	3	7	
	비행	0	0	2	2	
	또래괴롭힘	0	3	2	5	
정서조절· 대처능력	정서조절능력/정서조절전략	1	0	1	2	4
	스트레스 대처행동	0	1	1	2	
자아특성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자아정체감/ 자아유능감/개체화/성취동기	0	4	5	9	9
관계적 특성	부모자녀의사소통	0	0	2	2	9
	또래관계/이성과의 관계/사회적 관계	0	1	6	7	
적응력	학교적응	0	2	4	6	8
	삶의 질/안녕감	0	1	1	2	
학대	아동학대	1	2	1	4	4
계		8	32	56	96	96

기 시작하였고, 자아 및 관계적 특성, 적응력을 포함하는 등 아동변인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2000년대 후반기에는 2000년대 초반기에 비해 관계적 특성 및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가 증가하였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포함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또래관계 등 사회적 관계 특성을 다룬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도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부갈등관련 아동변인은 연구 초기 내적·외적 행동문제에 치중하였던 것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들 아동변인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정서발달 영역에 속한 것이었고, 긍정적 특성보다는 부정적 특성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부부갈등과 아동변인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인과 매개하는 변인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인, 즉 조절변인을 사용해 살펴본 연구는 총 17편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인구학적 특성이었다. 그 중

성별이 8편의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포함되었고, 연령 또는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한 경우가 3편 나타났다. 그 밖에 2000년대에 들어 자아탄력성이나 갈등통제의 신념 또는 대처효율성과 같은 아동특성과 부모자녀관계나 아동 조모관계와 같은 관계적 특성이 조절변인으로 연구되었다.

매개변인을 포함해 분석한 연구는 총 35편으로 나타났다. 이 중 5편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변인 자체를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고, 30편의 연구에서는 표 8에 제시된 변인들을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30편 중 7편에서는 한 모형에서 매개변인을 두 개 이상 사용하였다.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의 매개변인을 검증한 연구는 1990년대에는 2편이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부모특성 중 양육행동이었고, 그 다음은 아동특성 중 자아관련

표 7.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 조절변인의 종류 및 빈도 분포 (중복측정)

구분	조절변인명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빈도	소계
인구학적 특성	성별	1	3	4	8	12
	연령/학년	1	1	1	3	
	가족수입	0	0	1	1	
아동특성	자아탄력성	0	1	2	3	5
	갈등통제의 신념/대처효율성	0	1	1	2	
부모특성	부부갈등해결정도	1	0	0	1	1
관계적 특성	부모자녀관계/의사소통	0	1	1	2	3
	조모의 사회적 지지	0	0	1	1	

표 8. 부부갈등과 아동변인 간 관련성 매개변인의 종류 및 빈도 분포(중복측정)

구분	매개변인명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빈도	소계
아동특성	자아탄력성/존중감/통제력/내외통제성	0	2	5	7	15
	부모갈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	0	1	2	3	
	정서조절능력	0	0	2	2	
	스트레스대처	0	1	0	1	
	영적안녕	0	0	2	2	
부모특성	양육행동	0	4	6	10	14
	어머니의 우울	0	0	1	1	
	자녀학대/방임	0	1	1	2	
	부부폭력	1	0	0	1	
관계적 특성	부모자녀관계/의사소통/가족기능	0	4	1	5	8
	사회적 지지	1	0	2	3	

* 부모갈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는 자기비난, 위협, 대처효율성, 이혼지각이 포함됨.

변인이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들 10편 중 4편은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을 모두 포함했고, 4편은 부정적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2편은 긍정적 양육행동만을 다루었다. 아동의 자아관련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들 7편 중 자아탄력성을 다룬 연구가 4편을 차지했고, 그 외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내외통제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다. 관계적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들 5편 중에는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가까움이나 애정과 같은 관계 지각,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이 각각 한 편씩 있었고, 나머지는 친밀감이나 응집력과 같은 가족 전체의 기능을 변인으로 한 것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발표현황과 연구방법론 및 연구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발표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2년 이후 지난 18년간 총 90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과 후반에 급증하였다. 또한 이들 논문의 약 67%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직접적인 경로인 양육행동 외에 보다 큰 맥락에서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아동이 보고한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척도(권영옥, 이정덕, 1997)의 국내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었고, 다양한 관련성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 보다 보편화된 것도 논문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발달결과에서 부모의 영향을 이해하고자 할 때 부부관계의 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87편으로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문헌연구가 3편 나타났다. 양적 연구는 모두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였다. 이들은 모두 횡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즉, 국내의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는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자료수집방법도 질문지를 이용한 아동보고 또는 부모보고에 국한되어 수행되어 왔다. 국외의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Conger, Lorenz, Elder, Melby, Simons, & Conger, 1991; Forehand, McCombs, Long, Brody, & Fauber, 1988 등)에서는 질문지나 면접뿐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부부갈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논의하게 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변인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다중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양적 연구의 대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상집단이나 저소득층 집단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을 주요 대상 또는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김은숙, 성영혜, 2001; 노정숙, 이정숙, 김보애, 2003; 주소희, 조성우, 2004 등)도 소수 찾아볼 수 있었다. 임상집단이나 저소득층 집단의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취약한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보다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 국내 연구에서 취약집단의 아동을 포함해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이 구체화되고 다양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분포를 보면, 아동기, 특히 아동후기인 만 11세에서 13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58%를 차지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유아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나타나 연구대상의 발달단계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연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부부갈등은 자녀가 어느 발달단계에 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부갈등의 영향은 자녀가 발달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적극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부모와의 안정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부갈등이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나 청년기 자녀의 경우 부부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이전 발달단계부터 누적되어 발생

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김영희, 이정미, 2002)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경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아동기 자녀에게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영역과 경로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을 평가한 측정도구면에서는 먼저, 아동이 부부갈등에 대해 응답하는 경우, Grych와 그 동료들(1992)이 개발한 Child Perception for Interparental Conflict를 변안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권영옥, 이정덕, 1997)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다른 척도와 달리 부부갈등의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을 하위요인별로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아동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쳐 심리측정학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가장 많이 이용된 이유로 보인다. 청소년기나 청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Black과 Pedro-Carroll(1993)이 개발한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을 변안해 사용한 연구(채유경, 2005 등)도 소수 찾아볼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숙현, 윤혜미, 2005 등)에서는 Conflict Tactic Scale (Straus, 1979)이나 Partner Abuse Scale: Non Physical (Hudson, 1997)을 변안해 부부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사용된 부부갈등 측정도구는 모두 자기 보고식 또는 자녀보고식 질문지이고, 거의 대부분이 국외의 척도를 변안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부갈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보고하였으나 타당도를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형태가 다양해져야 하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통계분석기법으로는 변인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주요 연구문제를 답하는 데 있어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43편으로 모든 연구시기에 걸쳐 가장 많았다. 또한 2000년대에는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모형을 검증하는 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총 29편으로 1990년대에 2편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다각도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졌다(김정란, 이은희, 2007; 정문자, 전연진, 2005 등). 이는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의 단편적 관련성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에서 진일보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모형분석기법의 보편화는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를 2세대 연구로 진입하도록 촉진했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과 아동의 발달결과와의 관련성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을 규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이론적 틀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모형을 수정하거나 확대하여 검증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은 추후 연구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전체에서 정보의 출

쳐로 다중응답자를 사용한 경우는 15편에 그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응답자에게 여러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단일응답자 연구의 92%는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단일보고자 및 단일방식으로 수집한 측정치 간에는 방법상 공유변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공유변량으로 인해 측정치 간 관련성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즉 이들 연구에서 보고된 부부갈등과 아동의 발달결과 간의 관련성을 해석할 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평가자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Achenbach, McConoughy, & Howell, 1987) 다중응답자를 활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중응답자를 사용하거나 다중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을 평가한 자료를 이용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들을 주요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특히, 내적·외적 행동문제를 비롯해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등과 같이 정서영역의 변인이 가장 많았고, 자아의 특성과 사회관계적 특성을 다룬 사회성영역의 변인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부부갈등관련 아동변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다룬 경우가 많았지만, 연구초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의 어떤 측면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되는지 미시적으로 살펴

본 연구(권영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는 매우 소수에 그쳤다. 이와 유사하게, 국외에서 수행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들도 주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적·외적 행동문제를 비롯한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몇몇 연구(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Wierson, Forehand, & McCombs, 1988)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인지적 유능성이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외의 영역을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부부갈등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아동의 행동문제와 같은 부적응과 확연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적·외적 행동문제 외에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유능성, 형제자매관계, 또래관계, 인지적 유능성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발달결과와의 관련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관련 아동변인을 다양하게 살펴볼 뿐 아니라 이들 아동변인이 부부갈등의 각 차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미시적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인을 포함한 연구는 총 17편이었다. 조절변인의 종류는 초기에는 성별이나 학년 같은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나 갈등통제의 신념과 같은 아동특성, 부부갈등해결정도인 부부특성, 부모-자녀 또는 아동-조모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적 특성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조절변인은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과 아

동변인 간 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남아집단에서 부부갈등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아집단에서 나타나는 경로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이정미, 이양희, 2007;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 조절변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며 이들 연구 또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을 매개하는 변인을 검증한 연구는 총 30편이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부모특성 중 양육행동과 아동특성 중 자아관련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먼저,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의 양상은 모형에 포함된 연구변인이나 조절변인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다. 하지만, 정미영과 김영희의 연구(2003)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부부영역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서나 기분이 부모자녀영역으로 파급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고찰한 Krishnakumar와 Buehler의 연구(2000)에서 파급가설을 지지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서 아동특

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내외통제성과 같이 자아관련변인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기비난과 위협, 이혼지각과 같이 아동이 갈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한 인지적 평가를 이용한 연구(김정란, 2004; 주소희, 조성우, 2004)와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정서조절능력을 이용한 연구(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인지맥락적 모형(Grych & Fincham, 1990)을, 후자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성 가설(Davies & Cummings, 1994)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분야에 제시되어 있는 선행 이론이나 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선행 이론이나 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이 분야의 이론을 보다 빠르게 구축하거나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할 때 이들 선행 이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을 겪는 모든 부부의 자녀가 그로인해 악영향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부부갈등의 단순한 유무나 수준이 아동에게 일률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이에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에서 그 조건과 기제를 규명할 수 있는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경향을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의 유형과 자료수집방법이 보다 더 다양해져야 한다.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법을 이용한 양적연구에만 치우치지보다는 면담, 관찰 등을 활용해 다각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아동의 심리내적 과정에 초점을 둔 질적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광범위한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다. 즉 갈등의 빈도, 강도, 그 내용, 해결정도뿐 아니라 그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각 차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일회성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각 발달단계에 거쳐 지속적 누적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개인 생애적 시점에서 부부갈등의 영향을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상당 부분 제3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별로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부부갈등과 아동발달 간에 관련성이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논문 중 ‘부부갈등’이나 ‘부모갈등’이라는 단어로 검색이 가능한 것 중 아동관련 연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학위논문 중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부부갈등 관련 아동연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학술지에 발표된 부부갈등관련 아동연구를 살펴보고 발표경향과 연구방법론 및 연구내용적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이 분야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덕귀 (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고정자, 김갑숙 (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1), 80-98.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 149-166.
- 김영희,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김은숙, 성영혜 (2001). 부부갈등 및 부부 관계 특성과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성향과의 관계. *아동연구*, 15(1), 1-29.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 학대 및 자녀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2), 297-319.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노정숙, 이정숙, 김보애 (2003). 신체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놀이치료연구*, 7(2), 115-126.
- 노지형, 송현주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심리치료*, 7(2), 75-89.
- 어주경, 정문자 (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이경남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명숙, 김영미 (1993).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01-216.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정문자, 전연진 (2005). 아버지 원가족 분화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자녀 성차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 정미영,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은희, 이미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조숙현, 윤혜미 (2005). 어머니의 성격특성, 부

- 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잠재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9 (2), 15-31.
- 주소희, 조성우 (2004).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용인과 아동의 이혼지각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 - 남녀청소년의 모형비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2), 3-15.
- 채유경 (2005). 지각된 부부 갈등, 폭력노출 경험,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족 기능과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51-171.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Achenbach, T. M., & McCono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mato, P. R. (198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Issues*, 9, 75-9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ack, A. E., & Pedro-Carroll, J. L. (1993).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ediat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019-1027.
- Conger, R. D., Lorenz, F. O., Elder, G. H., Jr., Melby, J. N., Simons, R. L., & Conger, K. J. (1991). A process model of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early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430-339.
- Cummings, E. M., Davies, P. T., & Simpson, K. 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Davies, P., & Cummings, E.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287-411.
- Davies, P., Myers, R., Cummings, E., & Heindel, S. (1999). Adult conflict history and children's subsequent responses to conflict: An experimental tes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160-169.
- Emde, R., & Esterbrooks, M. (1985). Assessing emotional availability in early development. In W. Frankenburg, R. Emde, & J. Sullivan

- (Eds.),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79-101). New York: Plenum.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574-595.
- _____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Engfer, A. (1988).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pp.104-118).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ov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Forehand, R., McCombs, A., Long, N., Brody, G., & Fauber, R. (1988). Early adolescent to recent parental divorce: The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sex as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624-627.
- Fosco, G. M., & Grych, J. H. (2008). Emotional, cognitive, and family systems mediators of children's adjustment to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843-854.
- Gable, S., Belsky, J., & Crnic, K. (1992).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rogres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276-294.
- Grych, J., & Fincham, F.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Seids, M., & Fincham, F.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n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 Jenkins, J., & Smith, M.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rmonious homes: Maternal repor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0-69.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Kurdek, L. A.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 characteristic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H.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879-903.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Stocker, C.,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598-609.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Wierson, M., Forehand, R., & McCombs, A. (1988). The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 functioning to parent-reported and adolescent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1 차원고접수 : 2009.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1.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4.

A Review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JungHa L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JeongJin Yo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Ninety published studies through 1990 to 2009 were analyzed. Our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Most studies collected data using survey-methods with child-report questionnaires primarily from elementary school children. Single method as well as single informant was used to evaluate measures in most of the studies. To answer the main research questions, regression analyses were most frequently us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frequently performed in the more recent studies. Generally, the socio-emotional domains of child development, specifically child behavioral problems, were studied in relation to interparental conflict. Demographic variables were used as moderators and parenting as well as child ego variables was tested as mediators. Future research recommenda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interparental conflict, marital conflict, child, research trends, published articles